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2月17日(火) 午後2時

議事日程

1.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3. 1997年度서울特別市및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計劃報告
 4.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5. 서울特別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長·教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附議된案件

- o 報告事項 ... 2面
 - 1.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16面
 - 2. 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 17面
 - 3. 1997年度서울特別市및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計劃報告 ... 18面
 - 4.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 27面
 - 5. 서울特別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28面
 - 6. 서울特別市長·教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柳德烈 議員 外 14人 發議) ... 30面
-

(14時 27分 開議)

○議長 文一權;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o 報告事項

○議長 文一權; 議事擔當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金大根; 제14회 정기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議案은 條例案 6건, 同意案 3건, 意見聽取 14건, 請願 2건 등 총 25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은 內務委員會에,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97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은 財務經濟委員會에,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 條例案은 生活環境委員會에,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調整同意案은 水資源管理委員會에,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條例中改正 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行政權限의 委任에 關한條例改正 條例案은 文化教育委員會에,

97無償使用期間滿了地下道商街管理計劃同意案은 建設委員會에, 성동구 성수2가동 302번지 25호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의견청취안 14건과 鄭鎭澤 議員님의 소개로 中浪區 新內洞 613번지 52호 원당아파트 409호에 거주하는 박수갑이 제출한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都市整備委員會에, 金成春 議員님의 소개로 中區 장충동1가 101번지에 거주하는 설원식 외 19명이 제출한 일방통행로 시행 반대청원은 交通委員會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市議會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

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交通委員會에서 제안하여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산철교 전면철거 및 재시공 잠정연기 요구 건의에 대하여 地下鐵公社 社長으로부터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96년 12월 31일 23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 등 교체공사를 추진중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제안하여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승압 미개선 학교의 승압예산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원 건의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서울市教育廳 산하 모든 학교의 승압이 완료되어 이미 학교 구내까지 220볼트로 공급되고 있으며, 내선설비 개수는 서울市教育廳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市議會에서 채택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成聖鏞 議員님이 소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요망 청원에 대하여 97년부터 市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중이며, 金明炫 議員님이 소개한 良才大路邊 浦二洞 163번지 8호부터 164번지 28호 구간 시설녹지 철거에 관한 청원과 江南區 良才大路邊 浦二洞 176번지 29호 도로 개방촉구 청원, 成聖鏞 議員님이 소개한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具哲會 議員님이 소개한 서울市 衿川區 始興3洞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各 該當區廳長에게 처리토록 하였고, 田炳萬 議員님이 소개한 麻浦區 城山2洞 120번지부터 上岩洞 773번지 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上岩地區 등 주변개발과 연계하여 98년 이후

적정 소요 폭원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宋德華 議員님이 소개한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청원에 대하여는 龍山地域 상세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建設安全管理本部長으로부터 金喜甲 議員님이 소개한 江西 建設管理事業所 신축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내용을 수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市教育監으로부터 鄭韓植 議員님이 소개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7년부터 사립유치원 예산편성시 담임수당 편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政府에서 추진중인 유치원의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 실시방안이 확정된 후에 지원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市議會 議員 재·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제195조 및 제200조제1항에 의거 西大門區 제3선거구, 西大門區 제5선거구, 九老區 제3선거구의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闕員에 따른 재·보궐선거를 97년 3월 6일 실시함을 같은法 제35조제2항에 따라 97년 1월 31일자로 공고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2일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各 所管 常任委員會에 회부하였고, 또한 시정질문 조치사항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리며, 끝으로 지난 제91회 臨時會에서 各 常任委員會別 幹事選任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議員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議員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崔昌奎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昌奎 議員; 존경하는 議長 및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松坡區 出身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崔昌奎 議員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全 國民을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공허감에 빠뜨린 한보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檢察의 한보그룹 대출의혹 수사는 술한 의혹만 남긴 채 檢察의 한편의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本 議員의 생각입니다. 국민적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구인 서울시議會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분노의 함성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檢察은 지난 14일 한보그룹에 대한 5조원의 대출은 권력핵심에 대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國家의 政策決定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歷代 大統領은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성역은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외쳤습니다. 金泳三 大統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축소 및 짜맞추기 수사이지 않았습니까? 권력형 비리사건마다 제기되었던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한보수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배후세력

이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의원 등 3명밖에 안 된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가당치 않은 사실은 이들이 돈을 받은 시점이 모두 95년말 이후라는 것입니다. 특혜대출이 시작되고 비약적으로 대출액수가 늘어난 시점인 93.95년 사이의 외압에 대한 수사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지경입니다.

靑瓦臺 總務首席을 지내고 YS의 충직한 가신이면서 現職 國會 議員이기에 충분히 실세라고도 할 수 있는 홍인길 의원조차 스스로 자신은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속된 3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93.95년 사이에 외압을 행사한 배후 실력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의혹만 잔뜩 부풀린 채 檢察 마음대로 이제 그만하더니 이것이 도대체 법치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나라가 檢察國家입니까? 檢察 수사는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 더욱 큰 불신만 갖게 했고 핵심권력에 대해 의혹만 남겼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타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한보에게만 이루어진 특혜에 대해 고위층 관료가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도입허가, 러시아 가스정 개발사업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 부도에 대한 결정이 한보채권 은행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권력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靑瓦臺側의 정치논리로 부도처리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액 특혜대출의 물고름 든 산업은행 이형구, 김시형 전.현직 총재는 풀어주고 몇몇 피라미 은행장들만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막판에 걸려든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당초 실무자들의 대출반대가 심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케 한 외압에 대해 警察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國會입니까」 하는 議員 있음)

다섯째, 警察은 전.현직 고위직관리 및 정치권 거물들을 극비리에 조사하면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警察의 수사대로라면 정태수 총회장이 5조원의 불법 특혜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치권, 금융권에 준 것은 총 21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홍인길 국회의원은 자신을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이라 비유한바, 그렇다면 엄청난 거액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 몸체에 해당하는 외압 실체를 당연히 밝혔어야 합니다.

일곱째, 특히 일부 액수에 불과한 21억 5,000만원의 용도만 밝혀내고 실제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아니면 1조원인지도 모르는 정태수 회장의 비자금 용도를 警察은 왜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 비자금의 용도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警察은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정태수 총회장의 3남인 정보근 회장이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와 2차례 만났다고 하고, 또한 한보 본사에서 김현철 씨의 책이 1만 여권이나 발견됐는데도 한보 로비와 김현철 씨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보의 2인자인 정보근 회장과 술한 의혹을 안고 있

는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보 의혹에 대한 檢察의 수사는 축소와 짜맞추기 수사 그 자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일전에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지도층 원로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보사태의 책임은 政府與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政府與黨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金泳三 정권은 초기에 지방화니 분권화니 세계화니 하는 구호를 얼마나 거창하게 내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위 文民政府라고 하는 金泳三 정권의 중앙권력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심해진 것이 아니라 정권 말기적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어느 석학의 칼럼에서 요즘의 시국이 마치 李承晩 정권의 1959년 상황을 회상케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 한보사태, 안보적 상황 등 일련의 사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정권 말기적 증상 등을 보면서 우리 서울 市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앞날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번 한보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더욱 깊은 좌절감과 정말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책임 있는 자세,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達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및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노원구 출신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李達源 議員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議會가 시작되는 첫날이기에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발의해 도입된 5분 자유발언제에 의해 발언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지난 상반기를 겪어본 결과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 아직은 어둡기만 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이번에 발간된 서울 特別市 제4대 의회 상반기 의회의 운영과 활동이란 책자에 털어놓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行政府나 自治團體, 그리고 立法府 등 해방 이후 오랜 역사를 가진 공공기관들은 나름대로 법, 제도, 관행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그러저럭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정치사가 전통적으로 극단적인 중앙권력집중방식에 익숙해 있어 분권화라는 지방자치의 개념 자체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行政府든 立法府든 司法府든 우리 나라의 3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 자체가 자신이 향유해 왔던 권력을 지방자치에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中央政府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호시탐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 전반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목격한 바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地方政府라는 용어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나 법적

으로 그 개념이 정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地方政府란 말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 金泳三 대통령이 자치단체가 무슨 놈의 정부는 정부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해 무지하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 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與黨 國會 議員이나 中央政府의 관료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안 되면 내부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議會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법, 제도, 관행의 정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3대 의회에서 진작부터 해야 될 일인데 제3대 의회는 온갖 구설수에만 오르다 제4대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고백하건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노력을 과연 우리가 했는가라는 자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내의 법, 제도, 관행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의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에 대한 정비입니다. 서울시議會 회의관련 법규집의 각종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은 91년 제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지난 12월, 5분 자유발언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國會가 國會法으로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규정하고 있듯이 사실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규칙은 조례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조례로 통합

시켜 國會와 같이 서울市議會條例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회가 자치입법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바로 조례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조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독자적으로 조례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女性發展센터設置條例라든지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에 대해 財務經濟委員會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5권으로 인쇄되어 있는 서울特別市自治法規集을 보면 위원회별로 제대로 조례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자치법규집도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선뜻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상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2월경 文一權 議長께서 條例整備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는 인터뷰 기사가 문화일보 수도권면 톱으로 보도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文議長께서는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文議長께 하루속히 위원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 의회 제도 중 정비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교섭단체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협상과 타협입니다.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國會도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도출하건만 더욱더 민주적이어야 할 地方議會에서 독단과 독선이 횡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과거 소수당 시절 그렇게도 강하게 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한 당사자가 다수당이 되서는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폴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저 자신 누차 여러 곳에서 피력한 바 있지만 서울은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議會 議長이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장이 되고, 서울시議會 運營委員長이 전국운영위원장단협의회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4대때 의회 내부의 틀이라도 잘 정비해야 제5대 의회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선거라는 격동과 파란을 겪어야 할 올해 아무쪼록 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마무리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방금 閔庚燁 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閔庚燁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閔庚燁 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원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閔庚燁 議員입니다.

본의원원은 지난해 연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수고해 주신 同僚 議員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우리

서울市議會의 예산심의와 의결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常任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심사과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간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各 常任委는 地方自治法 제50조에 근거하여 전문분야별로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소속된 委員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소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決特委에 금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常任委員會에서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 各 常任委 소속 同僚 議員들의 권위와 심사권을 심각한 정도로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우리 서울市議會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심사하고, 보완·조정해 나가야 하며, 執行部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執行部와 常任委員會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보완.

조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만약 豫決特委 소속 몇몇 委員이 자기 지역구 위주의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市的 장기발전계획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시민에게 약속한 계속사업을 취소하고, 그 대신 사전조사조차 없었던 사업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신규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할애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그 사업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

어 우리 서울시議會가 쌓아온 모든 업적들이 하루 아침에 매도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실에 치우진 무계획한 나눠먹기식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서울시 발전에 저해요인이며, 常任委 무용론, 豫決特委 만능론, 더 나아가서 地方自治制度에 대한 회의론까지 발전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통찰과 반성을 기대합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국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은 하루빨리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약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 앞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토성을 바라보는 本 議員의 가슴에는 역사를 소중히 아끼지 못하는 소위 문화민족의 후예로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이 풍납토성이 국가 사적이니 국가 예산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中央政府는 지난 1988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넘겨줄 때 서울시長이 시비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中央政府의 억지에도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안타까운 점은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말싸움 하고 있는 동안에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 병들어 신음하며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93년부터 5개년계획에 걸쳐 829억원을 들여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民選市長님께서도 99년까지 846억원을 들여 복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한 바 있고,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50억원이 계속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豫決特委 여러분,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단지 국가위임사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市가 국가위임사무에 관련된 예산이 단지 풍납토성 복원사업뿐입니까? 또 일간지에서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특집기사 제1호로 풍납토성의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한없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말 없이 누워 후손들을 지켜 봐 온 문화유산, 이 역사적인 풍납토성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야 되겠습니까? 本 議員은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께 진정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약속대로 우선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中央政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대체해 나갑시다. 그것이 문화유산의 해에 우리 서울市議會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本 議員은 확신하면서, 우리 제4대 議會가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획기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후대 議會에 남길 수 있도록 존경하는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聖浩 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金聖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金聖浩 議員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산적한 議案을 앞에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本 議員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분 자유발언제를 활용하는 우리 議員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반기 후반부에 5분 자유발언제를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통과시켜서 도입한 취지나 목적은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의

정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執行部에 보다 나은 행정력 내지는 행정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래서 우리 의사당 안에서 그런 자유발언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5분 발언제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입니다, 때만 되면 정치권의 어지러운 정치구호나 그런 낱말들이 우리 서울시 의사당에서 항상 판을 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議長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5분 자유발언제가 잘못 운영됨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이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국민회의 의총에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보사건에 대해서 本 議員은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몇몇 장관들 구속시키고, 사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또는 핵심 權魯甲 議員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實定法에 위배된 그런 사태는 우리 말 장난하지 맙시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議長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本 議員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렇습니다. 회의는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면 그만이고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를 議長이 이 이야기 해라, 저 이야기 해라 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時 59分)

○議長 文一權;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이번 제92회 臨時會에서는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회기를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2. 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15時)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議員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議員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議員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金亨根 議員과 金亨吉 議員을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3. 1997年度서울特別市및서울特別市教育廳業務計劃報告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서울特別市 및 서울特別市教育廳 업무보고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趙淳 市長 나오셔서 1997년도 서울特別市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먼저 제4대 市議會의 後半期 院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92회 臨時會에서 97년도 市政運營 方向을 설명드리고, 議員 여러분의 高見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대 市議會와 함께 역사적인 民選自治時代의 大長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民選時代를 시작할 당시의 서울은 모순에 가득찬 모습이었습니다. 수십년간의 開發年代가 남겨놓은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都市問題가 쌓여 있었습니다. 市의 公務體系는 自律보다는 他律에 익숙하고, 변화에 대한 막연한 不安이 公職社會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自治時代가 시작되었지만 法令과 制度는 權威主義時代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自治制度 본연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自律이 없이 自治를 하고, 수단이 없이 目的을 達成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民選自治의 새로운 時代를 우리는 열어왔습니다.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열어온 지난 1년 7개월의 自治時代는 대단히 成功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市民本位の 市政, 人間中心의 都市라는 새로운 市政目標 아래, 市政史上 最初の 中期計劃인 市政運營 3個年計劃을 수립하고,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市政의 각 部門別로 올바른 政策方向을 정하고 一貫性 있게 事業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 成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고가도로 등 各種 都市施設物에 대한 철저한 安全點檢과 補修를 하였고, 安全管理體制를 대폭 補強하여 이제 어느 정도 市民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道路와 駐車場을 擴大하는데 치중하였던 交通政策을 乘用車 利用을 자제토록 하는 需要管理政策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混雜通行料 徵收와 같은 새로운 施策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大衆交通 優先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地下鐵 5호선 등 83km를 추가 개통함으로써 서울에 본격적인 地下鐵時代를 열었습니다.

環境基本條例와 環境憲章을 제정하여 서울環境政策의 기틀을 갖추었으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등을 통해 市民과 함께 環境問題를 풀어나가는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開發年代를 거치면서 최소한의 綠地마저 住宅과 工場에 빼앗긴 서울을 다시 푸르고 쾌적한 都市로 만들기 위하여 公園 綠地擴充 5個年計劃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家庭도우미制度와 老人 共同家庭의 導入, 女性發展基金의 造成 등 市民福祉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施策을 開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市政을 방관하던 많은 市民들도 生活周邊의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스스로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데 同參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年 7個月은 市政의 不合理한 것을 合理化하고, 非正常的이었던 것들을 正常化시켜 온 期間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全體的으로 安定 속에 變化를 이룩한다는 目標가 착실하게 達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成果를 바탕으로 民選 後半期를 시작하는 今年에는 安定보다는 變化에 重점을 두면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安全하고 快適한 環境 속에서 市民들이 서울을 내 故鄉같이 사랑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을 서로 돕는 市民共同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우리 市 公務體系 自體의 自淨을 통하여 불합리와 無事安逸의 구습을 제거하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市民에게 奉仕하는 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市政의 生産性を 높이겠습니다.

둘째로, 市政運營 3個年計劃과 交通綜合對策, 公園綠地擴充 5個年計劃, 環境保全 長期綜合計劃 등을 통하여 마련한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市民들이 民選市政의 成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政策基盤이 마련된 安全, 交通, 環境部門은 금년에도 一貫性 있게 政策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成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철교와 楊花大橋 舊橋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새로 놓겠으며, 한강교량.고가도로.지하철 등 公共施設物을 中心으로 한 多衆移用 施設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精密診斷과 補修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交通安全, 도시가스 안전, 공사장 안전 등 市民生活

주변의 安全確保에 重點을 두어 市民들이 安全事故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市民의 交通不便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제2기 地下鐵의 계속 建設과 제3기 地下鐵의 設計 등 大衆交通 優先政策을 계속 추진하여 버스와 지하철의 輸送分擔率이 선진국 수준까지 增大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公營車庫地를 98년까지 7大 圈域別로 建設하고, 버스業體의 大型化를 유도하는 동시에 都市高速道路의 建設, 漢江橋梁의 新設 등 交通 基盤施設을 확충해 나가는 일도 연차적으로 계속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보행권이 존중되는 人間都市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에 대한 綜合的인 實態調査를 거쳐 步行環境改善 基本計劃을 수립하겠습니다.

횡단보도와 自轉車道路를 확대 설치하고, 道路의 밝기를 개선하며, 차없는 거리, 보행자 안내판 등을 본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公園綠地擴充 5個年計劃에 따라 금년부터 本格的인 事業에 着手하겠습니다.

汝矣島廣場을 서울의 代表的인 象徴公園으로 조성하고, 工場移跡地에 公園을 만드는 등 市民生活圈 가까이에 푸른 公園과 綠地을 대폭확대함으로써 市民들이 快適하게 쉴 수 있는 空間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大氣, 水質, 騒音 등의 環境汚染을 저감하는데도 지속적인 努力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소년소녀가장 등 따뜻한 激勵와 支援이 필요한 이들에게 社會福祉 施策을 대폭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를 크게 확대 시행하고, 老齡手當의 支給對象과 支給額을 늘리며, 低所得 老人에게는 목욕비와 이발비를 지원하고, 老人福祉基金을 확충하겠습니다.

障 碍 人 的 福 祉 增 進 을 위 하여 障 碍 人 共 同 生 活 家 庭, 重 病 障 碍 人 短 期 保 護 事 業 등 在 家 福 祉 事 業 을 확대 하고, 障 碍 人 에 대 한 전 세 금·학 비·의 료 비 의 지 원 을 확대 하고, 視 覺 障 碍 人 심 부 름 센 터 를 운 영 하 는 등 다 양 한 福 祉 施 策 을 施 行 하 겠 습 니 다.

女 性 的 社 會 參 與 를 적 극 적 으 로 지 원 하 기 위 하여 保 育 對 象 兒 童 9 만 7,000 명 全 員 을 보 육 할 수 있 도 록 保 育 施 設 을 擴 充 하 겠 으 며, 여 성 발 전 센 터, 여 성 플 라 자 의 건 립 을 추 진 하 고, 女 性 發 展 基 金 의 60 억 원 積 立 을 금 년 말 까 지 早 期 達 成 할 것 입 니 다.

今 年 에 力 點 을 두 고 자 하 는 또 한 가 지 分 野 는 서 울 經 濟 의 활 려 를 회 복 하 고, 市 民 의 消 費 生 活 을 비 롯 한 生 活 經 濟 의 健 全 化 를 도 모 하 는 일 입 니 다.

이 를 위 하여 外 國 企 業 의 投 資 를 誘 致 하 기 위 한 가 능 한 誘 引 施 策 을 開 發 하 고, 패 션·소 프 트 웨 어 등 서 울 型 產 業 의 育 成 을 위 한 支 援 施 策 을 내 실 있 게 마 련 하 겠 습 니 다.

끝 으 로 서 울 의 自 治 力 量 을 높 이 는 데 보 다 적 극 적 으 로 努 力 하 겠 습 니 다.

市 와 市 議 會, 市 와 自 治 區, 市 와 中 央 政 府, 國 會 등 서 울 市 政 을 돌 러 싸 고 있 는 機 關 들 과 의 관 계 를 보 다 生 產 的 인 관 계 로 발 전 시 켜 나 가 겠 습 니 다.

市 政 에 대 해 論 議 할 수 있 는 機 會 를 늘 리 고, 보 다 많 은 問 題 에 대 해 성 의 있 게 협 의 하 고 설 명 하 는 체 제 를 갖 추 으 으 써 市 政 發 展 을 위 해 서 로 協 力 하 는 새 로 운 關 係 가 형 성 될 수 있 도 록 最 善 을 다 하 겠 습 니 다.

自治서울의 진정한 市民共同體를 形成하기 위하여 市民의 자발적인 封事活動과 地域社會 寄與運動을 장려하고 體系化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市政을 상세히 說明하고 公開하는 體系를 확고히 함으로써 市民들의 理解와 협조 속에서 바른 市政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가지밭을 헤치고 民選自治時代의 大長征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걸어온 길보다 더 험난한 가지밭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同伴者입니다.

서울이 志向하는 곳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人情과 여유가 넘치고, 市民 각자의 創意가 십분 발휘되며, 發展의 成果가 市民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人間中心의 都市입니다.

아시아·太平洋時代의 새로운 世界秩序를 이끌어 가는 中心都市이며, 統一祖國의 영원한 首都입니다. 앞장 서서 市民들을 이 길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責任을 안고 있는 市와 市議會는 마음으로부터 진정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民選 後半期를 시작하는 今年의 對內外的인 與件을 살펴보면, 政治, 經濟 등 모든 면에서 不確實性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市政의 前途에도 어려움이 많을 展望입니다.

저는 서울市 公職社會에 새로운 氣風을 진작하고, 市議會와의 協力體制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克服해 나갈 각오입니다.

議員 여러분의 議政活動이 원활히 遂行될 수 있도록 倍前의 誠意를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民選 2次年度인 금년이 市와 市議會가 힘을 합하여 서울의

自治力量을 한 段階 跳躍시키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그리고 議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 나오셔서 1997년도 서울特別市教育廳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劉仁鍾;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정축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에서 우리 教育廳의 금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議員님께서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민선 2대 教育監으로 취임하여 地方教育自治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서울교육의 현실과 현안문제를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서울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등 그 동안 8만 여 교직원 모두 힘을 모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힘 입어 21세기 주역을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이 펼쳐지는 1997년은 벅찬 희망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어가는 역동의 노력과 분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체제와 풍토 속에서 고착되어 버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낡은 허울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혁신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자아를 실현하게 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무

대에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1997년을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금년도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인간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성을 기르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운영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학교, 교원,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 체제를 확립하는 교육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 등을 혁신 과제로 정하여 그 실천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는 물론, 특히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올바른 서울 시민상의 정립과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教育廳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企劃管理室長 成耆璇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의 서울特別市教育廳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教育廳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 많으셨습니다.

執行部 간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常任委員會委員改選의件

(16時 1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常任委員會 委員 改選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常任委員會 委員의 改選은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의 의결
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運營委 員會 池龍鎬 委員을 車星煥 委員으로, 建設委
員會 崔鍾德 委員을 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으로, 水資源管
理委員會 鄭在天 委員을 建設委員會 委員으로, 水資源管理委
員會 申垞植 委員을 內務委員會 委員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5. 서울特別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
例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16時 13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運營委員會 徐在浣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徐在浣 議員;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徐在浣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서
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인 國內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國內 여비를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 제5조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일비의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여비정액은 본 條例案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원을 일비 1일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 숙박비 1야당 3만 7,500원을 숙박료 1야당 4만 1,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란의 제4호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앙정부 직제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서울特別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뒤에 실음)

6. 서울特別市長·教育監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柳德烈 議
員 外 14人 發議)

(16時 1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長·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
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運營委員會 趙相勳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議員; 안녕하십니까? 運營委員會 趙相勳 議員입니
다.

제92회 임시회에 있어서 서울特別市長·教育監 및 關係公務
員 出席要求의 件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市議
會 議員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地方自治法 제37조와 서울特別市議會에出席
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등의範圍에關한條例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 및 關係公務員의 본회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될 內務委員會, 財務經濟委員會 등 각 常任委員會 소속 委員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과 서울特別市教育監, 副市長과 副教育監 그리고 각 室.局長과 서울시 산하 本部長,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 地方自治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特別市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발전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特別市長과 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長·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뒤에 실음)

.....
○議長 文一權; 다음은 本會議 休會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常任委員會別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8分 散會)

○出席 議員 134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信浩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金喜甲	羅太均	盧載東	文錫珍
文八卦	閔庚燁	閔相今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垆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柳德烈	柳鍾珽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李康珍
이금라	李基連	李達源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在天	鄭鎮宇	鄭鎮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相勳
趙旬衡	池龍鎬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崔鍾根	黃好淳	許光泰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白懿宗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李昌根	張精一
鄭址弘	崔鍾德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趙淳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劉仁鍾

企劃管理室長 成耆璇